

사노피-아벤티스, KOICA 와 말라리아 퇴치사업 협력

- 사노피-아벤티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추진하는 말라리아 프로젝트 협력 파트너로 치료제를 원가(no profit no loss)에 공급
- 저개발국 소외계층의 의약품 접근권 확대 일환으로 의약품 가격 차등 정책 적용
- 향후 한국의 저개발국 해외 원조사업에 협력 확대 기대

(2009년 11월 18일, 서울) 유럽 1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아벤티스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과 손잡고 아프리카 DR 콩고(콩고민주공화국)의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위해 자사의 말라리아 치료제 ASAQ Winthrop®을 원가(no profit no loss)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는 DR 콩고 지역 임산부 및 5세 이하 영유아 등 말라리아 고위험군에 대한 질병퇴치 노력을 지원코자, 총 578,750회 분의 말라리아 치료제(ASAQ Winthrop®) 공급을 사노피-아벤티스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재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에 따라, 사노피-아벤티스는 개발도상국 내 빈곤층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는 ‘Access to Medicin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말라리아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100~3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 어린이의 최대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ccess to Medicines’ 프로그램은 세계 인구의 80%가 의약품 치료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 중 17억 명은 의약품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된 저개발국의 저소득 계층을 위해 의약품의 차등적 가격 정책,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는 원가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정책(no profit no loss)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약품의 무상 기부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기업의 자선 활동이 아닌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일부로서, Access to Medicines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국제기구, NGO, 정부 및 원조 기관들과 활발한 파트너십을 전개해 오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장은 “Access to Medicines 프로그램은 전세계 환자들의 공중보건 및 의약품 접근성 이슈를 보다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노피-아벤티스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라며, “저개발국가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이슈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파트너로서 KOICA 및 한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KOICA의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위해 DR 콩고 지역에 공급될 예정인 ASAQ Winthrop®은 2003년 사노피-아벤티스가 국제기구인 DNDi(Drugs for Neglected Diseases Initiative)와 공동으로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로 1일 1회의 복용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성인은 1달러 소아는 0.5달러로 공급해 소외계층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였다. ASAQ는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 ‘코어서캠’(Coarsucam®)이란 브랜드를 통해 차등화된 패키지와 가격으로 공급된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와 DNDi는 ASAQ Winthrop®이 필요한 전세계 환자들에게 보다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특허권 행사를 포기한 바 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항공권연대기여금’의 국내명칭으로, 항공권 구매자들로부터 소액을 모아 해외원조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2007년 9월 이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 경우 국제선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천원의 기여금을 자동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약 150억 원 규모의 개발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 재원은 ‘국제약품구매기구(UNITAID)’의 HIV/AIDS·결핵·말라리아 퇴치사업과 국내 민간단체(NGO)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아프리카 질병퇴치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에 대하여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는 유럽 1위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다. 세계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바탕으로 약 19,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29개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7개의 핵심 치료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 혈전증, 항암, 당뇨병, 중추신경계, 내과영역, 백신. 국내에서는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세계적인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과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